

“전우원씨 사죄 진정성 느껴져...가해자 고백·사죄 이어지길”

5·18모지 참배하고 유족·피해자들 만나... 외투 벗어 묘비 닦기도 “주범은 전두환, 진상규명 도울 것” 밝혀... 오월단체 “용기있는 결정”

5·18 학살 가해자인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27)씨가 지난달 31일 광주에서 5·18 광주 학살 피해자와 유가족·광주 시민에게 사죄한 것과 관련, 5·18 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진정성이 느껴졌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전씨가 이후로도 꾸준히 5·18 진상 규명에 도움을 주고 다른 가해자들의 양심 고백과 사죄가 이어지길 바란다는 바람도 전했다.

전씨는 지난달 31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공법3단체(5·18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 도청지킴이 어머니 등 유족·피해자들을 만났다. 전씨는 고(故)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인 김길자 여사, 계엄군 집단 발포에 총상을 입은 김태수씨, 항쟁 이후 상무대에서 구금 및 폭행·고문에 시달렸던 김관서 등 5·18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5·18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될 비극이며 그 주범은 저의 할아버지 전두환이다”며 5·18진상규명을 위해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같은 날 오후에는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영령에 고개를 숙여 용서를 구했다. 5·18 첫 희생자인 고(故) 김경철 열사와 공식 사망자 중 가장 어린 고(故) 전재수(11살·광주 효덕초 4년)군,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한 행방불명자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다. 또 무명열사의 묘 4기에 차례로 참배한 뒤 제2묘역을 찾아 지난해 별세한 고(故) 정동년 전 5·18기념재단 이사장의 묘도 참배했다. 전씨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직접 묘비를 닦으며 애도를 표했다.

전씨는 5·18민주묘지 방명록에 “저라는 어둠을 빛으로 밝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아버지는 여기 묻혀 계신 모든 분이십니다”라고 썼다. 이는 지난 2019년 할머니인 이순자씨가 전두환씨의 광주법정 출석을 앞두고 “남편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발언한 것을 뒤집어 쓴 것으로 해석된다.

오월 단체들은 일제히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며 전씨의 사죄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다만 앞으로 전씨가 다른 가해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도록 하는 꾸준한 행보를 보여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43년동안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던 5·18을 후손이 나서서 사죄하고 책임지려 하는 모습은 높게 평가받을 일”이라며 “공식 행사 이후에도 전씨는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연락달라’고 문자를 보내왔는데 그 마음이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원 이사장은 “5·18기념재단 또한 전씨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제시해 주는 길잡이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양재혁 5·18유족회 회장이 “전씨 또한 뚜렷하지 못한 삶을 살며 불행한 가정에서 많은 한(恨)을 갖고 있었으며, 그만큼 진정성을 갖고 사죄하려 온 것이 오히려 좋았다”며 “전씨의 사죄 행보는 5·18의 이미지가 쇠신되고 진상 규명, 5·18진상 헌법 수록에도 한 걸음 다가가는 상징적인 사례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얼마든지 불러주면 5·18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전씨의 마음이 앞으로도 변치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두환씨 손자 전우원씨가 지난달 31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의 고(故) 문재학 열사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 전씨는 자신의 외투로 묘비를 닦으며 오월영령들에게 애도를 표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황일봉 5·18부상자회 회장은 “오월 어머니들의 한이 풀릴 때까지 끊임없이 광주를 둘러 사죄를 하겠다는 마음에서 진정성이 느껴졌다”며 “진상규명을 위해 뒤편 하겠다는 전씨의 의지가 앞으로도 오월 진실을 밝히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씨가 5·18진상규명에 대해서도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꾸준히 책임있는 자세로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서 달라는 요구의 목소리도 나온다.

송선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은 “학살의 책임자에 대해 손자들이 언급을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일”이라며 “전두환씨 일가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젊은 사람이 엄청난 영혼의 고통을 받아왔다는 것이 느껴졌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어 “이를 계기로 5·18 학살에 책임 있는 자들은 물론 그 관련자의 자손들도 그날의 진

실을 고백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존엄’을 지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노태우씨의 직계 가족이자 지난 2019년 이후 수차례 사죄 행보를 이어 온 노재현(58)씨와 접촉, 전두환 일가와 노태우 일가가 한 자리에 모여 사죄를 하는 자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홍남순변호사 유족, 5·18 정신적 손배 승소

자녀 7명에 2700만원씩 배상 판결

‘민주·인권의 대부’ 고(故) 홍남순 변호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임태혁)는 홍 변호사의 자녀 7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유족들은 위법한 공무집행행위로 홍 변호사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위자료 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각 상속 비율에 따라 청구했고 법원은 이 중 63%를 인정해 유족 한명 당 각 27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홍 변호사는 1980년 5월에는 16명의 수습위원과 함께 5·18 시민 회의를 막기 위한 소위 ‘죽음의 행진’에 나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년 7개월(579일) 간 복역한 뒤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5·18 광주추진위원회 회장, 5·18광주민주혁명기념사업 및 위원장 건립추진위원장 등을 맡아 5·18 진상규명

과 명예회복 활동을 하다 지난 2006년 타계했다.

이에 정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민법 규정을 들어 기간접은 홍 변호사가 보상금을 지급받은 지난 2005년으로 소멸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멸시효 기간접은 홍 변호사의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인 2019년 3월부터라고 봐야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정신적손해배상 미지급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선고되는 2021년 5월까지의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2021년 5월까지의 소멸시효가 중지돼 있었고, 이후 다시 기산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헌법 질서 파괴 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체포·구금·고문으로 인해 고인이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위법성 정도가 중대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부상자회 전 임원이 성폭력적 모욕” 오월어머니집 관장, 고소장 제출

오월 어머니집 관장이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의 전 임원에게 성폭력적인 모욕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광주서부경찰은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이 공법단체 5·18부상자회 전 임원 A(62)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 이용 음란)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월 11일 SNS로 김 관장에게 성적 수치지시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24회 전송하고, 육설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31회 전송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관장은 당시 5·18 유족회 회원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A씨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자 A씨가 이 같은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일보보 A씨의 해명을 듣고자 수 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를 보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만취운전 사망사고...1심 징역 4년→2심 7년

길을 건너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대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만취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대폭 늘었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새벽 3시 30분께 광주시 광산구 흑석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졸음 운전 하다 보행자에 있던 4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상태임에도 혈중알코올 농도 0.174%(운전면허 취소 수치)로 운전을 하다 보행성으로 돌진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대리기사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생 두 딸을 둔 B씨는 낮에는 신차 판매원, 밤에는 대리기사로 일했고 이날도 딸의 학원비를 보태기 위해 대리운전 장소로 이동하던 중 참변을 당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입장이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특별한 변경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심의 형이 중하게 내려졌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처벌 기준도 높인 것이 반영됐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형사재판 진행 중에 양형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소제기 시의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양형기준변경은 이유 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종합 보증을 통해 피해자 측에 보험금이 지급됐다. 초범인 점도 유리한 정황”이라면서 “한 가정의 가장인 A씨를 사망에 몰아넣을 수 없는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점,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음주운전을 엄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2개> *A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22타경 2718	1	순천시 장선배길89, 102동 9층 904호 [조례동, 금당대입아파트] 113.956㎡	아파트	230,000,000	
2022타경 53648	1	광양시 광장로112-20, 102동 1층 104호 [종동, 성호아파트] 59.94㎡	아파트	58,000,000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22타경 1456	1	고흥군 도양읍 농동농촌길5, 2층 202호 [제1동] 57.08㎡	다세대	102,000,000	
2022타경 2657	1	여수시 연동7길37, 2층 206호 [연동동, 태항빌라] 77.82㎡	다세대	131,000,000	
[대지/임야/전답]					
2022타경 52706	1	순천시 황전면 회룡리 488 522㎡ [공유자 이영호지분 1/30, 매각제외제외외건물소재 건물위험법정지상권성립여지있음, 공부상지목대이전현황주거용건부지[현광기]및일부도로로이용중]	대지	539,400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 1회제한
	2	순천시 황전면 회룡리 550 1150㎡ [공유자 이영호지분 1/3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매각지분해당하는수목[매실나무]매각포함]	전	612,900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 1회제한
	3	순천시 황전면 회룡리 732 1531㎡ [공유자 이영호지분 1/30, 공유자우선매수권1회제한]	답	1,122,000	지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4	순천시 황전면 회룡리 신84-6 9818㎡ [공유자이영호지분 1/30, 연고미상분묘소재 로분묘기전권성립여지있음, 공부상지목임야이나현황지연령및일부모지이용중]	임야	3,405,840	지분매각, 임야매각, 공유자우선매수권 1회제한
2022타경 53280	1	광양시 광영동 산58-3 992㎡ [공유자이영호 1/2지분전부, 공유자우선매수권 1회제한]	임야	59,024,000	지분매각, 맹지
2022타경 53884	1	광양시 전월면 차사리 신24-1 33000㎡ [공유자이영호지분 2314/33000, 연고미상분묘 1기 소재하는 것으로 보여 분묘기전권성립여지있음]	임야	9,256,000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 1회제한, 제외수목[두릅나무]매각제외
2022타경 53945	1	순천시 외서면 반룡리 81-4 3436.7㎡ [공유자정일영지분 1/2, 공유자우선매수권 1회제한]	답	29,211,950	지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자동차, 중기]					
2022타경 57671	1	사용본기:광양시 북포사할길 114-19, 6동 105호 [금호동, 장미연립] 등록번호:40구2214 차형:투싼 연식:2012 [주행거리:자동차계기판상176,409km, 관리상태:보통형, 사용연료:디젤, 검사유류기간:2021.10.11~2023.10.10, 기타[옵션등]:변속기오도,네비게이션설치됨, 자동차키부하버튼부분손상있음, 사고이력:보험개발원제공중차차고이력정보보고서상사태피해5회, 5,165,783원, 상대차피해3회, 384,467원]	자동차	7,000,000	보관:순천시해룡면복성리489-101수차주매대상사061-743-2227, 기타[옵션등]:변속기오도, 네비게이션설치됨, 자동차키부하버튼부분손상있음
2022타경 58797	1	사용본기:여수시 연동1길 40 [연동동] 등록번호:24297048 차형:G70 연식:2019 [주행거리:자동차계기판상21,121km, 관리상태:차체외부및내부부품손상은파손부분미발견, 사용연료:가솔린, 검사유류기간:2019.11.19~2023.11.18, 기타[옵션등]:2.0터보소츠포터키이러구동, 컴포트패키지, 컨버니언스패키지, 액티브세이프티2, 와이드셔루프, 네비게이션, 후방카메라, 블랙박스등설치됨]	자동차	34,500,000	보관:순천시해룡면복성리303수차주매대상사061-743-2227, 사고이력:보험개발원제공중차차고이력정보보고서상사태피해1회15,089,680원, 상대피해1회1,398,950원있음
[기타]					
2022타경 1395	1	보성군 문덕면 용양리 803 337㎡	대	91,133,200	일괄매각, 목록3,6농지취득자격증명요, 목록3차이별하우스1개등및합동(양분)시설매각제외, 목록5제외의건물매각포함
		보성군 문덕면 용양리 804 1250㎡	전	91,133,200	
2022타경 3315	1	보성군 문덕면 용양리 823 390㎡	답	370,000,000	양분농지, 보관:여수국동항, 의정동및어업연포함매각, 어업허가받은 선박으로그유류기2023.12.31까지
		보성군 문덕면 용양리 823 390㎡	답	370,000,000	
2022타경 53587	1	고흥군 도덕면 도덕리 998-7 100㎡	묘지	10,122,800	일괄매각, 제외수목매각제외
		고흥군 도덕면 도덕리 (물건번호:1:분묘소재로 분류하기전권성립여지있음)	대	10,122,800	
2022타경 53709	1	보성군 회천면 팔로리 332-3 275㎡ 제외의 창고 등 15.2㎡ [공유자김우준지분 1/2]	대	33,098,900	지분매각, 일괄매각, 매각지분해당제외의건물매각포함, 공유자우선매수권 1회제한
		보성군 회천면 남부관광로 2293-59 단층59.15㎡ [공유자김우준지분 1/2][물건번호:1:수목[교수목약4주]매각제외]	주택	33,098,900	

● 고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권인 경우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가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해당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 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청과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패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에 관여하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매각기일: 2023. 4. 17. (월) 10:00
- 매각장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08공매매장
- 매각방법
 - 입찰방식에 비추어 입찰일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보증금 7개항과 낙찰여부 보증금에 한해 입찰방부제에 입찰함에 동의한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고매각가격의 1%[100만원]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반성하고 낙찰의 자기유류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기관을 제공한 문서[입찰 보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입찰방부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와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을 최고가매수권인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이 2인 이상의 경우에는 그 입찰자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 최고가매수권인인과 차순위매수권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반환한다.
-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에 대하여 매각결정일까지 매각허가 신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과 소액이전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기한은 최종 매각결정일까지 확정 납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된다.
 - 차이된 대금지급기한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을 실시한다. 다만, 매각기일도 지정된 날의 3일장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차이를,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지급부서 유효하고, 미납시 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 소유권이전 및 인도
 -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권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분연이 가입을 위해서는 당해 부동산의 지상권과 지압권 등 등록세영수필사항이 및 등록세영수필사항을 첨부하고, 국민권익위원회발행번호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준다.
 -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등 대항책은 매각이 취소될 경우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 주의사항
 - 매각의 주된 목적은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지상권 등이 설정된 낙포분도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로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특정인을 위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 입찰인들의 출찰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결정 일 현재, 현황조사보고서 및 경쟁입찰자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1)과에 비치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경우를 원소스 및 입찰서류를 판단하시기를 바란다.
 - 특별매각조건에 내용은 매각결정일에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내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동의하시니 신분공고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사항은 입찰명함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권인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된다. 단, 농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에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다.
 - 매각대금 납부후 매각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소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된다.
 - 산예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분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결정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 매각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ction.go.kr [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여야 할 사항이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권익위원회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특히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열람불가 신청이나 열고, 대법원판정신청이나 손해배상신청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과 공고나 비치된 매각결정명세서 등을 꼭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 4.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법보좌관 서두현